

ILL (Inter-Library Loan)과 MEDLIS

고신대학교 의학도서관, ¹김원묵기념 봉생병원 도서관, ²부산위생병원 도서관

박 창 호 · 장 배 순¹ · 박 연 심²

I. 머리말

19세기까지의 도서관은 단독으로 자료를 갖추고 그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헌의 폭발적인 증가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정보화사회의 심화로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확성, 신뢰성이 있는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이 도서관 상호협력과 도서관망의 형성이다. 최근에는 도서관 상호협력과 도서관망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서관 상호협력은 훨씬 포괄적이고 역사도 길다.

최초의 도서관협력은 13세기 전반 영국의 수도원 도서관에서 138개의 문헌목록을 수록, 편성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1740년에는 독일 도서관에서 자료교환을 목적으로 한 종합목록을 편성하였고, 제웨트는 1846년에 설립된 스미쏘니언연구소의 도서관 장으로서 학술간행물의 대대적인 교환사업을 계획하고 미국전역의 복본과 불용도서를 재배치하려고 시도하였다. 1885년 스미쏘니언연구소가 최초로 과학 기술분야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국가종합목록을 발간하고 1920년 미국의회도서관에서 장서종합목록을 편성한 역사가 있다.

도서관망은 20세기 중엽에 생겨난 개념으로 도서관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도서관간의 수집, 보존, 이용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자원의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도서관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시켜 도서관봉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도서관들간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비해 도서관 상호협력은 보다 포괄적이며 역사가 장

구한데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종합목록의 편성, 분류 편목의 집중화, 서지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통한 자원의 공동 활용에 협력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원문을 파일형태로 취득하려는 이용자의 욕구증가와 인터넷의 대중화, 검색기법의 단순화로 인해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 정리, 가공하는 사서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학문적으로도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의 커리큘럼이 바뀔 정도로 부담스러운 현실 가운데 놓여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환기에 의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은 상호대차와 MEDLINE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던 기존의 봉사방식을 대외적인 정보여건의 변화에 자체적으로 MEDLIS 등을 만듦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의 상호대차의 개괄적인 부분과 MEDLIS의 제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상호대차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ILL (Inter-Library Loan)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 도서관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는 협정을 맺은 도서관간에 소장자료를 서로 빌려주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단행본등의 대출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 한정된 서지 정보원에만 의존하던 이용자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1차 문헌 입수요구가 증대되면서 도서관은 이용자의 검색도구등을 다양하게 개발함은 물론이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발하여 이용자 봉사의 틀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III. 미국의 상호대차 역사

1876년 미국도서관협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미국은 도서관간의 협력활동이 필요함을 절감하여 본격적으로 몇 가지 협력활동을 시도하게되었다. 1917년에는 최초로 도서관간의 상호대차 규정을 미국도서관협회의 위원회에서 채택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형태를 갖춘 전국적인 협력은 1948년부터 1972년까지 실시된 "Farmington Plan"이다. 이 계획은 60여개 도서관이 학술연구를 위한 외국자료를 주제와 지역을 분담하여 포괄적으로 수집하고자 한 것이었다. 수집을 위한 협력활동은 공법480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고 그 대신에 상대국의 출판물을 수집하고자 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의회도서관 이외에 30여개의 연구도서관에 분배되었다. 1962년부터 1970년까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약 1,300만권에 달하는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담수집이 성공하자 1966년부터는 세계각국에서 발행한 자료에 대한 수집 계획으로서 NPAC가 의회도서관에 의해 시작되었다.

또한 자료의 공동보존을 위한 도서관 상호협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1949년에 보스톤과 캠브리지 지역 11개 대학도서관이 협력하여 뉴잉글랜드보존도서관을 설립한 것이다. 1949년에는 시카고지역의 10개 대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중서부도서관상호대차관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대학도서관마다 산적인 불용도서를 공동으로 보존하는 보존도서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보존도서관에 머무르지 않고 중서부의 회원도서관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얼마간의 자료도 구입하였으며 연구시설도 갖추었다. 그 후 사업을 확대하여 1965년에는 연구도서관 센터로 계승되었다. 이밖에도 도서관 상호대차와 참고봉사에서도 몇몇의 상호협력 활동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는 20세기 중기까지는 수집, 정리, 이용, 보존을 위한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체계가 이루어졌고 20세기 중엽에 가서야 도서관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66년에 의회도서관이 수립한 MARC선도계획에 따라 기계가독목록이 개발됨으로써 도서관업무 자동화, 상호협력, 자료교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기계가독목록테이프의 등장으로 1970

년대에 원격서지정보망이 출현되었다. 1967년에 OCLC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개막된 도서관망은 컴퓨터와 원격통신망을 활용하면서부터 국제적인 도서관망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IV. 한국의 사례

그 동안 한정된 서지 정보원에만 의존하던 이용자들이 CD-ROM이나 온라인을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의 범위가 확장됨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1차 문헌의 입수욕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도서관은 이용자의 검색도구 등을 다양하게 개발함은 물론이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되어 있다. 협의체를 형성하여 종합목록을 만들어 상호대차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도 이러한 방안의 하나이다.

국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협의체들은 대략 10여개 정도인데,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지역대학연합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국교육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연구단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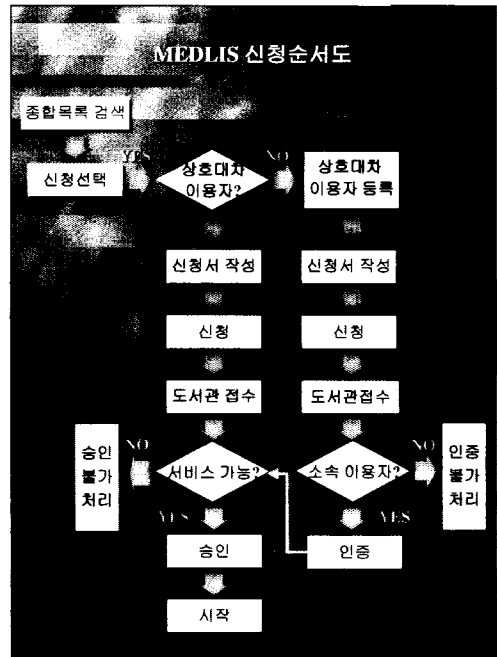


그림 1. MEDLIS 신청순서.

보관리협의회’,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대전·충남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KERIS, KORSA, NDSL 등의 단체들과 각 지역 도서관 협의체 기구를 통해서 상호대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처럼 신속, 정확, 저렴한 원문복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은 없다.

1) KERIS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s)-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교육과 학술연구 정보를 조사, 수집, 제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교육학술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RISS4U는 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로, RISS4U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내 전국대학 학술정보 통합검색, 해외학술DB 및 학술정보원 문검색 등의 이용이 가능하며, 전국대학 학술정보 통합검색을 통하여 원문이 필요한 경우 원문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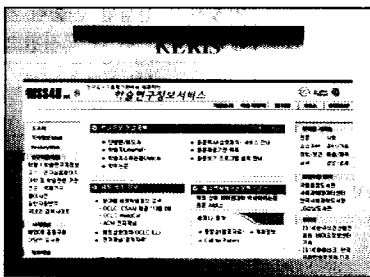


그림 2. KERIS 초기화면.

2) KORSA (Korea Resource Sharing Alliance)-외국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국내 100여개 대학도서관 및 정보자료실을 중심으로 “학술지공동활용협의회(KORSA)를 운영하고 있으며, KORSA는 인터넷으로 학술지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협의체이다.

회원기관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술지의 소장사항 및 목차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각 회원기관의 소장자료를 공유하고, 학술지 구독비용

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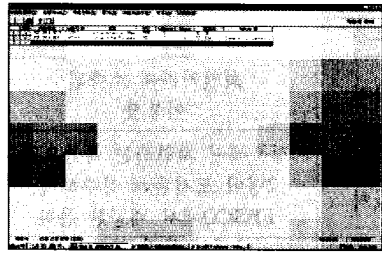


그림 3. KORSA 상호대차 신청화면.

3) NDSL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국가과학기술원전자도서관

NDSL은 학술지 25,000여종의 서지 정보와 저널 수록논문 2천만건의 목차 및 초록검색을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주요전자저널 3,500여종에 수록된 전자원문의 One-Click서비스이다. 200여 협력기관에서 분산 소장하는 인쇄저널에 대한 온라인 원문복사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4. NDSL 초기화면.

V. 한의도협의 상호대차서비스

오늘날 미국의 의학이 세계의학으로 대변되는 것은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의 의학사서들과 MEDLINE 데이터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고 이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것은 독특한 상호대차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학의 발전은 의학사서의 체계화된 정보의 수집, 정리, 가공이 무시할 수 없는 일임을 생각할 때 현재 국내의학잡지에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

표 1. Korsa · NDSL · Keris 비교표

	Korsa	NDSL	Keris
주소	library.kjist.ac.kr	ndsl.kaist.ac.kr	www.riss4u.net
이용자격	회원기관에 소속된 이용자	회원기관에 소속된 이용자, 비 소속 이용자	회원기관에 소속된 이용자
자료입력	정부에서 지원하는 목록요원 2명이 도서관에 상주하며, EBSCO에서 제공한 목록 데이터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	자료입력은 없고 인쇄저널은 목차 데이터 제공	정확한 서지를 입력할 수 있는 A군 도서관에서만 입력
자료구입	공동구매	전자저널 공동구매	각 대학의 종합목록을 모아 통합목록
IP	3개	1개	1개
회비	20만원	없음	없음
키워드	영문	영문	한글, 영문
수록자료	국외학술지	국외학술지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장점	1993년부터 자료의 서지사항 정확	원문을 볼 수 있다(전자저널).	중앙정산, 빠른 속도, 상호대차처리과정을 볼 수 있다. 원문을 볼 수 있다.
단점	1993년도 이전자료 각 도서관으로 소장정보 확인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다	부정확한 서지사항
신청순서	이용자가 신청한 논문이 타 도서관으로 바로 신청	korsa와 같음	이용자가 신청한 논문이 사서에게 전달되고 난 뒤 타 도서관으로 신청
가 격	보통	동일하지만 건당 NDSL 사용료 100원 추가	기본요금 700원 + 매당 70원
	빠른		기본요금 1,000원 + 매당 70원
	FAX		기본요금 1,000원 + 매당 400원
	전자전송		기본요금 없음 매당 200원

된 납본제도의 도입과 공동수서가 절실한 실정이다. 아울러 이를 DB로 만들고 SDI서비스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상호대차가 이루어질 때만이 미국의 NLM시스템과 견줄 수 있으며 상호대차에 관하여 의학사서 본연의 의무에 충신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개 기관이 이룩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들이다. 그러므로 지난 수십년 동안 구축되어온 종합목록DB를 바탕으로 의도협 차원에서 국가적인 프로젝트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의 주 대상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과도 나름대로의 정책적 연대를 펼쳐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의학도서관 협의회는 1968년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 결성이전의 서울, 연세, 가톨릭, 고려의대(4개 의학도서관)의 노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

1968년 6월18일 창립총회를 갖기까지 의학관계학술잡지종합목록의 근간이된 목록등을 상호교환(1967년 양서 916종을 수록한 초판발행)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의학도서관 협의회 상호대차의 시발

점이라 볼 수 있다. 이 후 30여년 동안을 이들 기관이 주축이 되어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를 이끌어왔다.

1994년 속달, 일반의 분리에 의한 쿠폰의 제정, 1995년 의학관계종합목록의 CD제작, 1996년 Korean Index Medicus의 CD제작 등으로 상호대차 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시대적 정보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일대 전환점에 이르게 된 것도 간과할 수만은 없다.

1996년부터 의학도서관협의회 전산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상호대차 프로그램의 전산화는 KML(Korean Medical Library)이라는 WINDOW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5년 의학관계종합목록을 검색기반으로 하고 상호대차 사서의 입장에서 힘들게 여겨지던 정산 및 상호대차 신청 및 관리부분을 종합목록에 접목하여 개발한 최초의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상호대차 프로그램이다. 그 외에 몇 개기관에서 정산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KML은 인터넷이 상용화되지 못한 9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타관신청에는 기존의 방법인 우편, 빠른우편, Fax체제를 고수하였으나 종합목록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검색과 관리를 동시에 수용한 점에서 전국주요의과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였다. 이것은 의학도서관협의회 상호대차시스템이 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학관련 사서가 개발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라는데 그만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후 인터넷이 상용화 되면서 KML을 바탕으로 2000년 WEB용 상호대차 프로그램인 MEDLIS가 만들어지고 2001년 업무량을 대폭 감소시킨 정산프로

그램의 추가로 인하여 사실상 상호대차 시스템 전반에 관한 일차적인 시스템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이후 재도약을 위하여 많은 의학사서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하며 프로그램 및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의 주체인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UPGRADE가 절실한 실정이다.

VI. 고 찰

도서관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겨난 봉사기구로서 그 봉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나 규모, 방법 면에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의학정보의 80% 이상이 학술저널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으며 의학분야는 학술잡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의학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학술잡지에 수록된 기사단위의 서지통정을 위한 전산화가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학술저널의 원문에 대한 요구 또한 타분야에 비해 높다. 이에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MEDLIS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기관들 간에 서로 이용하기 전에 전산분과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정산제도를 프로그램에 도입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 이후 상호대차 업무처리의 신속정확성이 향상되었고 국내의 어느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위치에 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개선해야할 점이 남아 있다.



그림 5. KML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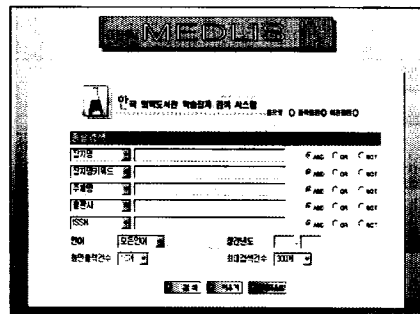


그림 6. MEDLIS 검색화면.

1) 검색

(1) 잡지를 검색할 때 어떤 것은 Full Name을 넣어야만 하고, 어떤 것은 약어명을 넣어도 되고, 어떤 것은 첫 글자만 넣어도 되는 등 잡지 검색이 일정하지가 않다.

(2) 일본잡지의 경우 MEDLINE에서 검색되는 부분과 상호대차목록에서 주기입된 부분이 다르게 표시되어 검색 시 정확한 재현이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MEDLINE의 약어명을 중심으로 배열함이 바람직하다.

(3) 표제지가 아닌 통용되는 약어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예: NEJM).

(4) 정관사, AND, & 등 불용어를 만들어 검색 시 배제되어도 검색이 되게 해야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최초의 종합목록CD-ROM을 만든 후 지속적인 Upgrade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신청

(1) 같은 이용자가 여러 논문을 신청할 경우 이용자 이름과 소속을 논문 신청할 때마다 기입해야한다. 개인 이용자가 등록되어 있는 대학 도서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서관직원이 타관에 신청하는 경우에 1명의 이용자가 여러 건의 신청을 할 경우 많은 불편함이 초래된다.

(2) 이용자의 소속부서를 자관의 실정에 맞게 기입할 수 있는 환경설정이 없다. 예를 들면, 병원도서관의 경우 교수나 기금교수 등은 없지만 다른 지원

부서나 행정부서에서도 논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관에 맞는 환경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부록인 경우 페이지 칸에 문자를 넣을 수 없어 다른 칸에 표시할 수밖에 없다. 부록 칸을 하나 더 만들어 기입토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No를 기입하는 곳에 Sup, Part등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4)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청방법은 일반우편인데 신청방법의 기본값이 Fax로 되어있어 논문을 신청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값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부분도 자관의 이용패턴에 맞게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환경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논문신청을 끝내거나 타관에서 들어온 논문의 퇴를 처리대기하고 홈으로 돌아갈 경우 런 타임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을 때도 같은 결과가 많이 도출되어 툴키를 활용하기도 한다.

간단히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6) login/pass방식이 아닌 ip인증을 각 기관마다 두어 속도의 증가를 꾀해야 한다.

3) 출력

(1) 신청서에 부서가 나타나지 않아 문헌도착 후 이용자에게 연락하거나 일정하게 배열할 때 어려움이 많다.

(2) 문헌 신청을 의뢰 받았을 경우, 같은 기관 같은 신청자는 같은 용지에, 같은 기관 다른 신청자는 다른 용지에 출력할 수 있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Fax일 경우 기관이 같으면 같은 용지에 출력하고, 기관이 다르면 새로운 용지에 출력할 수 있게 하여 출력된 용지의 절단이나 다시 복사하는 번거로움 없이 타 기관에 바로 전송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 Fax는 새로운 Page에 인쇄되게 해야 한다.

4) 정산

(1) 기관별 정산금액리스트에서 신청자와 신청방법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정산내역을 보고할 때와 개인부담을 청구할 때 한 화면에 나타나면 편할 것이다.

(2) 정산할 때 정산기간을 조건으로 주고 그 기간에 도착된 문헌에 한해 이용자별로 정렬하여 출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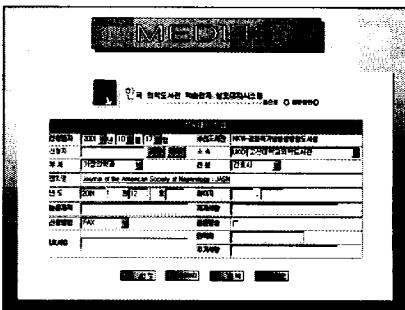


그림 7. MEDLIS 신청화면.

는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

(3) 개인통계는 쿠폰수가 기재되는데 부서별 통계는 건수로 되어 있는 이중성이 존재한다.

(4) 이러한 기능들이 파일로도 나올 수 있게 되어야 한다.

5) 종합목록

(1) 종합목록의 틀린부분(대등서명, 간기, 연도 등)을 회원기관에서 고칠 수 있게 하거나 해당기관에서 의뢰하고 담당자를 두어 기존의 DB와 비교하여 수정가능토록 해야 한다.

(2) 자관의 소장정보를 입력할 때 최근 입수한 No.를 적어주며 다 입수한 경우에는 Full이라고 기입토록 해야 하며 자관의 종합목록을 자관에서 수정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File 등으로 출력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3) 기존의 방식이 아닌 자관파일에서 간단히 수정하여 FTP로 전송할 수 있게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4) 자관의 소장목록을 한번에 입력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자관의 종합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자관의 소장목록을 입력하려면 잡지명을 일일이 찾아 소장사항을 입력해야 하므로 불편함이 많다. 만약 프로그램상에 자관의 종합목록이 있다면 자관의 소장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6) 부가서비스

(1) 프로그램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사항을 모아 놓은 FAQ를 만들어 반복되는 질문을 줄이고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였으면 한다.

(2) 국내외 학술지 목차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첨부되었으면 한다. 국외학술지의 목차는 PUBMED를 사용한다거나, 국내학술지의 경우는 현재 미완성인 국내학술기사색인을 각 회원기관이 분담해 정확한 DB구축을 한 후 자료 이용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증소병원도서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힘들다고 보여지며 이 부분은 의학도서관협의회 차원에서 납본과 데이터베이스구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3) MEDLIS접속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종합목록(책자형 목록 또는 CD-ROM)과 같은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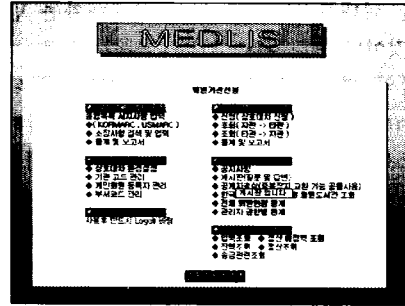


그림 8. MEDLIS 주화면.

책이 있었으면 한다. 일례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시스템의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중에서 사용되는 대화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고 본다.

7) 프로그램관리

(1) 상호대차프로그램의 관리주체가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보수 및 관리가 업무에 과중한 의학도서관 직원에게 일임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2) 많은 기관에서 불편해 하고 요구하는 이용자의 개선문제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3) 서버의 과부하 및 인터넷망의 문제 등으로 인해 동시접속자가 많을 경우 속도에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용과 기관관리자용의 차이를 두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4) 지난 9월20일 님다 바이러스로 인한 서버가동의 중단이 있었다. 원론적인 지적이지만 유지보수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VII. 맺음말

급증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되는 출판물을 어느 한 도서관이 모두 소장할 수는 없다. 또한 도서관에서 자료를 축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관 도서관간의 수서, 정리, 전산화, 자료유통에 있어 서로 협력을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예산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정보봉사의 한계를 상호대차를 통하여 해소하고 단위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데 있어 상호대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972년에 실제로 가동된 서지봉사를 위한 OCLC와 같은 도서관망이 출현하게 되자 가입도서관은 전용회선을 통해 도서관망에 연결되었고 이 망을 통해 서지정보를 입수하였으며 그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가입관은 단말기에 의해 기존의 데이터를 자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외에, 자관의 자료를 입력하면 희망형식의 편목도 가능하고 각종의 업무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을 상가해볼 필요가 있다.

계속교육, 체제의 구상 및 실현에 대한 지원, 법적 지원, 이용자 집단의 조정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서관 자동화를 위한 봉사도 하고 있다. 아울러 자문활동, 교육 자원분담에 대한 지원, 원격정보검색, 속보의 발생, 강습회 등과 같은 업무를 도서관망의 주요업무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MEDLIS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 즉 자료은행 사이에는 서지기록의 질적수준과 정확성이 문제가 되는데 서로 조정을 못한 채 각 기관별로 자동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전국적인 체제로 도서관봉사를 조정하고 계획하기 위하여 1970년에 NCLIS를 구성하였다. 1975년 이 기구는 도서관 및 정보봉사를 위한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여러 주와 각 지역의 도서관자동화 노력을 전국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1980년에는 CLR에서 여러 서지봉사기관을 연결시키기 위한 BSDP를 지원하였다. 다음 해에는 전거과 일체제를 연결시키기 위한 LSP를 지원하였다. CLR에 의하여 OCLC체제를 사용하여 구축된 CONSER도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부분적으로 논문, 학술지 등의 상호대차를 실시하는 기관이 있으나 의뢰건수나 제공건수 면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그나마 명목상인 곳이 대부분이며 우편물이 매일 발송되는 곳과 격일로 발송되는 곳 등 다양한 자관의 상황이 존재한다.

게다가 국립대학 도서관협의회에서 “도서관 자료 상호이용규칙”을 제정, 실시하여 상호대차의 대상으로 단행본까지를 포함하나 단행본에 대한 대차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호대차의 실제대상범위를 단행본까지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은 지출만 존재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도서관의 관리자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이 작은 도서관들의 현실이다. 이에 병원도서관들은 경제적인 실물이 아닌 무형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 기관에 봉사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각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母기관의 의사결정권자와 국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학도서관협의회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면모에서 벗어나 협회체제로 나가야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의학정보의 납본기관으로 지정되어 MEDLINE같은 한국의학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선도기관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매체에 기반한 의학정보시스템을 다수 구축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거대한 의학정보망을 구성하여, 의학정보를 장소나 기관에 구애없이 실시간에 공유하게 될 때 비로써 실질적인 정보공유도 가능해지고 만성적인 지역간 정보불균형 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다.

의학도서관의 현실적인 문제인 제한된 예산, 직원의 잦은 로테이션, 정보의 복잡·다양화, 이용자 의식의 상승, Full-Text에 대한 욕구 상승, 타관과의 중복자료의 누적,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로 인한 예산 낭비, 도서관 서고의 부족, 재교육의 미비 등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관리자의 인식전환, 국내학술지의 납본제 및 공동구입, 국내원문DB의 구축, 해외DB공동구매, 협의회·국가차원의 강제적 법규마련, 의학주제사서의 체계적 확보 및 제도화, 지역거점 도서관 육성, 국내학술지의 국제적 인지도 확보를 위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연구동향, 회의나 세미나 자료 등을 제공받아 독창적인 국내 의학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학도서관협의회에의 집안 잔치가 아닌 국가적, 세계적으로 힘을 가진 협회로 발돋움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순박. 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 현황과 개선방안. 대학 교육 1996; 81: 72-86.
 - 2) 배순자. 국제도서관 상호대차에 대한 소고: B.L.L.D.의 국제대출업무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1983; 16(1): 18-27.
 - 3) 송준용. 의학도서관 간 외국학술잡지 공동이용의 발전 방안, 상명대학교 대학원, 2001.
 - 4) 이순택. 도서관과 상호협력-국내협력을 중심으로. 도서관 1984. pp.5-15.
 - 5) 이종문. 정보화시대의 도서관상호대차에 관한 연구, 디지털도서관. 1996. (1996, 가을호): pp.38-42.
 - 6) 윤봉자. 한국의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도서관 1997; 24(1): 15-39.
 - 7) 윤정선, 윤봉자, 정동열. 학술잡지 공유를 위한 의학도서관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도서관 1996; 23(1): 11-32.
 - 8) 전명숙. 정보사회의 도서관봉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94; ('94.12): 161-181.
 - 9) 정학수, 김혜양. 의학관계종합목록의 발간사 및 제작방향. 한국의학도서관 1991; 18(1-2): 49.
 - 10) 조수현. 국내상호대차의 실태와 문제점진단. 한국의학도서관 1982; 16(1-2): 25-28.
-